

## ZOOM HOTEL & HOSTEL

Design\_Mitchel Penneman / Detrois SA Client\_Fabian Henrion, Bernard Wilmet Location\_flue De La Concorde 59-61, 1000 Brussels Built area\_1,000m² Completion\_January 2015 Photographer\_Serge Anton Editorial designer\_Choi Sejung Editor\_Lee Kyoungeun

The owners of the <Zoom Hotel> are also the owners of the 'Vintage Hotel' also in Brussels. The theme chosen by clients was photography. Designers analyzed the thing, and did not want a simple hotel with pictures on the wall. They worked in black and white, and bubular structures that are reminiscent some photo studios. Yellow lighting infuse vitality into a entire space. Then designers organized a photo contest via Facebook. The theme was 'Urban Brussels'. They received a lot of photos of amateur (non professionals), Designers have selected the best and have placed throughout the hotel. Also behind the beds. Those selected were given a free night at the hotel. This is a project called 'participatory'. The unknown public attended the hotel's decoration. Since then <Zoom Hotels is very successful. Testing terms and the command.

(중 호텔)과 부위점에 있는 '반티지 호텔'의 소유주이기도 한 의례인은 호텔의 디자인 개념으로 사진용 선택했다. 디자이너는 박민이 사진으로 가득 재위진 단순한 디자인에서 벗어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진에 대한 인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서진 스튜디스가 먼상되는 경속 구조종과 흑백 사진에 느낌이 물보이는 공간을 안성했다. 노란색 조명은 전체 공간 호름에 생동권을 불어났는다. 만원, 디자이너는 웨어스북을 통해 '도시 브래널'이라는 주제로 사진 공간적을 진행했다. 이에 수만은 아마주아 사진자? (전문 사진작가는 한 영도 참가하지 않았다가 공모전에 작품을 보내왔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최고의 작품을 접던하여 호텔공간 곳과 취대 미리암에 전시하고, 직원이 선정된 참가자는 호텔에서 우리로 하품병을 보낼 기회가 상으로 주어졌다. '참가'라는 이들의 이 프로젝트는 대중의 손을 통해 호텔 디자인이 완성됐고, 바로 이라면 과정이 (중 호텔)의 성공적인 발판이 했다. 교육을 나타왔다.















1 RECEPTION 2 ROOM 3 KITCHEN 4 BAR

145